



안타 KIA 유민상 27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0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 9회말 2사에서 KIA 유민상이 안타를 치고 있다. /뉴스

인천 '무고사 해트트릭' ...성남 대파

개인 통산 3번째...6-0승리 · 최하위 탈출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 최하위 인천 유나이티드가 성남FC를 대파하면서 최하위에서 벗어났다. 치열한 잔류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은 27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성남과의 하나원큐 K리그

2020 23라운드에서 상대 최장예의 한 수적 우위를 잘 살려 6-0 대승을 거뒀다. 김준범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무고사가 해트트릭, 김도혁이 멀티골을 기록했다. 특히 무고사는 3골 1 도움으로 공격을 이끌었다. 올 시즌 5번째 해트트릭으로 무고사 개인적으로는 통산 3번째다. 성남의 수비수 연제운이 경기 시작 2분 만에 퇴장 당하면서 일찌감치 수적 우위를 점했고, 적극적인 공세로 압승을 거뒀다. 인천은 5승(6무12패 승점 21점)을 신고하며 같은 시간 패한 부산 아이파크를 최하위로 밀어내고 11위에 올라섰다. 연제운의 2분 퇴장은 2012년 스피릿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K리그1에서 나온 최단시간 퇴장이다. 종전 기록은 한교원(전북)이 2015년 5월 23일 인천전에서 전반 5분에 퇴장당한 것이다.

손흥민, 유럽축구리그 파워랭킹 1위

최근 '포트트릭'을 포함 2경기 5골 2도움을 몰아친 손흥민(28·토트넘)이 영국 매체가 선정한 유럽 주요 리그 파워랭킹에서 당당히 1위에 올랐다.

영국 매체 90min은 25일(현지시간) 유럽 주요리그를 대상으로 지난 주말 최고의 활약을 펼친 15명의 선수를 언급하며 손흥민을 1위로 선정했다.

이 매체는 손흥민에 대해 "사우샘프턴전에서 4골이란 믿을 수 없는 활약을 펼쳤다"면서 "주중엔 스코티아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에서 1골 2도움으로 토트넘 승리를 이끌었다"라고 설명했다.

손흥민은 지난 20일 사우샘프턴과의 2020-2021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혼자 4골을 터트리며 토트넘의 5-2 대승을 지휘했다.

EPL 진출 후 첫 해트트릭이자 생애 첫 한 경기 4골을 터트렸다. 엄청난 활약에 영국 주요 언론들

'2경기 5골 2도움'...최고 활약
영국 매체 90min 선정...2위 케빈 더 브라위



토트넘 홋스퍼 손흥민이 20일(현지시간) 사우샘프턴과의 경기 전반 추가시간 팀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

은 손흥민을 주간 베스트11에 올려 영국 BBC와 EPL 사무국은 손흥민을 2라운드 베스트11에 선정했고, /뉴스

스카이스포츠 EPL 파워랭킹에선 손흥민이 전체 1위에 등극했다.

1라운드 115위에서 무려 100계단이 넘는 가파른 상승이다.

손흥민 활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북마케도니아 원정에선 스코티아를 상대로 2경기 연속골이자 한 경기 3개의 공격포인트를 몰아치며 3-1 승리를 견인했다.

빠박한 일정에도 폭발적인 스피드와 정확한 슈팅으로 토트넘 승리의 파랑새 역할을 해냈다.

90min은 "미쳤다는 말 밖에 나오지 않는다"면서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손흥민에 이어 유럽리그 랭킹 2위에는 케빈 더 브라위너(맨체스터 시티)가 뽑혔고, 3위는 해리 케인(토트넘)이 차지했다.

4위는 세르주 나스리, 5위는 트로이 사네(이상 바이에른 뮌헨)다.

'르브론 트리플더블' 레이커스 10년만에 파이널

트브론 제임스(레이커스)는 역시 중요한 경기에서 강했다.

미국프로농구(NBA) LA 레이커스가 10년 만에 파이널에 진출하며 통산 17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레이커스는 27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어드벤처스 아레나에서 열린 덴버 너기츠와의 2019-2020 서부콘퍼런스 결승(7전 4선승제) 5차전에서 117:107로 승리, 시리즈 전적 4승1패로 파이널 진출을 확정했다.

2009~2010시즌 이후 10년 만에 파이널에 진출한 레이커스는 통산 17번째 챔피언에 도전한다.

가장 최근 우승도 2009~2010시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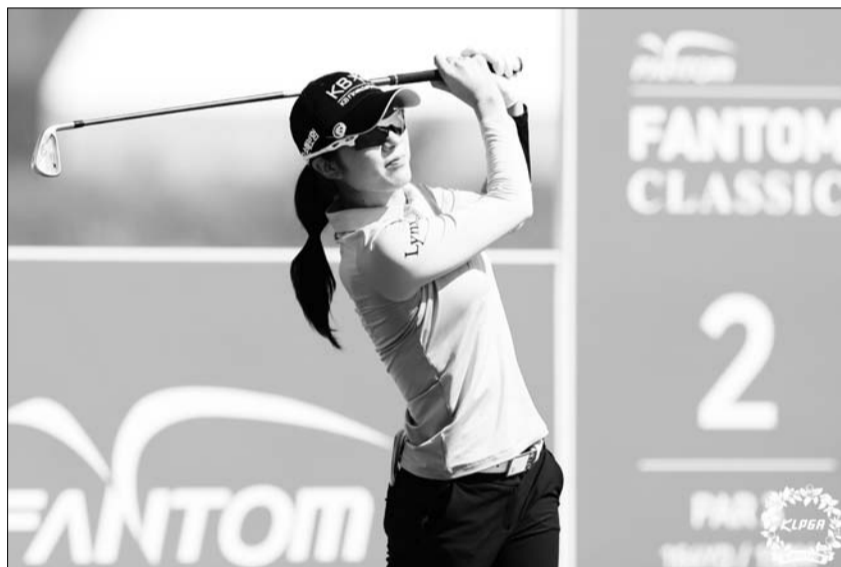
NBA 역대 최다 우승팀 보스턴 셀틱스(17회)와 파이널 대결이 성사될지 관심사다.

플레이오프 1·2라운드에서 모두 1승3패의 열세를 뒤집으며 '역전의 명수'로 불린 덴버의 도전은 끝났다.

레이커스의 제임스는 중요한 일전에서 트리플더블을 기록하며 에이스의 면모를 과시했다.

KLPGA 안송이 10개월 만에 또 우승...2승째

KLPGA 투어 팬텀 클래식, 10언더파 206타 기록



안송이. /KLPGA 제공

안송이(KB금융그룹)가 다시 한 번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안송이는 27일 영암군 사우스링스 영암 컨트리클럽(파72·6454야드)에서 열린 KLPGA 투어 팬텀 클래식 최종 라운드에서 3언더파 206타를

쳤다. 최종합계 10언더파 206타를 기록한 안송이는 공동 2위 그룹의 추격을 1타차로 뿌리치고 트로피에 입을 맞

쳤다. 우승 상금은 1억2000만원. 2010년부터 정규투어에 참가한 안

송이는 지난해 10월 ADT캡즈 챔피언십에서 237번째 출전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10년 만의 첫 승리라는 기쁨을 누린 안송이는 10개월 만에 또 다시 우승컵을 추가, 통산 2승을 달성했다.

공동 3위로 최종 라운드를 맞이한 안송이는 전반에만 버디 2개 무승 경쟁에 뛰어들었다.

10번홀에서 버디를 추가한 안송이는 13번홀 보기로 주춤했지만 14번홀 버디로 골장 흐름을 바꿨다.

안송이가 남은 홀을 파세이브로 끝내는 동안 경쟁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면서 그대로 레이스가 막을 내렸다.

장수연(동부건설), 장하나(비씨카드), 박채윤(삼천리), 허다빈(삼일제약), 김우정이 안송이에게 1타 뒤진 공동 2위로 대회를 마쳤다.

1라운드에서 깜짝 선두로 나섰던 유현주(골든블루)는 마지막 날 4오버파의 부진 속에 최종합계 1언더파 215타 공동 4위에 그쳤다.

올해 유일할 다승자이자 삼금 랭킹 1위 박현경(한국도지신학) 역시 공동 4위에 만족했다.

가격 이상의 가치, 건강하고 안전한 식재료



프로방스
담양점 OPEN

OPEN 10:00 ~ CLOSE 20:00

모든 음식 포장·배달 가능 | 061)382-3636 | 대형주차장 앞에 있습니다. 레이나 골프장 입구 옆

